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미친 정치·경제적 영향

Peter Akos BOD 교수, 전(前) 헝가리 중앙은행 총재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

#### ■ 주요 내용

- 영국의 EU 탈퇴가 중동부 유럽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 유럽 대중들의 혼란, 경제성장전망치 소폭 하락
- 중동부 유럽(CEE)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 영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 수출 및 수입 현황, 금융권의 관계, 이민자 현황 및 순/과실 송금의 추세에 나타날 잠재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 거시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럽연합 기금의 흐름을 중심으로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 영국의 EU 탈퇴가 중동부 유럽 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

###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반응

- 영국의 결정(유럽연합 탈퇴 혹은 잔류)이 유럽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방대한 양의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에서는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정치적 대응 방안들을 준비해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중동부 유럽(CEE) 국가들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브렉시트가 결정되기 직전까지 중동부 유럽 국가 수도의 시민들 사이에서는 브렉시트가 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대다수의 분석 자료들이 유럽연합 잔류를 지지하고 있어, 경미한 차이로 투표가 부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음.
- 충격적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각국 정부 관료들은 브렉시트가 자국에 미칠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대중들과 재계를 진정시키려 노력해왔음.

### ☒ 유럽 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경제성장전망치 소폭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이후 전개된 혼란스러운 상황은 직간접적으로 유럽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공식적인 경제성장전망치는 즉각적으로 후퇴함.
  - 이를테면 헝가리 정부는 2016년 GDP 성장 전망치를 0.3% 가량, 2017년 전망치를 0.6% 가량 낮추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영국과 중동부 유럽 국가(여기서는 헝가리를 의미함) 간 무역이나 경제 관계의 단절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유럽 내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지는 2016년 경제성장전망치를 헝가리 2.3%에서 2.2%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3.5%에서 3.0%로, 체코는 3.3%에서 2.8%로 낮추었음.

☐ 브렉시트는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브렉시트는 (1) 무역, (2) 은행 용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3) 이주와 송금이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하여 유럽 경제에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유럽연합 기금의 흐름(the flow of EU funds)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에 잠재적인 중력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브렉시트가 가져올 지정학적 변화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움.
  - 이를테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 영국의 선례를 따라 유럽연합을 탈퇴할 수도 있고, 현 유럽 연합 핵심국들과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권역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두 경우 모두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2

## 중동부 유럽(CEE)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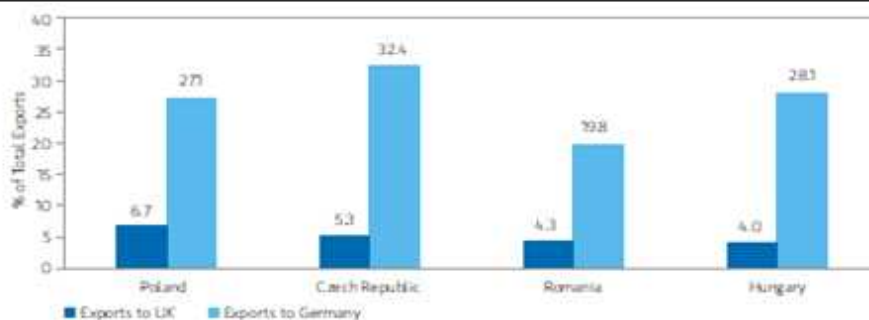
☐ 브렉시트가 중동부 유럽에 미칠 일차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 관계에서 세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보아야 함.

- (1) 영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 수출 및 수입 현황, (2) 금융권의 관계(financial links), (3) 이민자 현황 및 순/과실 송금의 추세에 나타날 잠재적인 변화가 이에 해당함.

☐ 중동부유럽(CEE) 국가들의 대영국 수출 현황

- 첫째,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중동부 유럽(CEE) 국가들에 영국 시장은 중요도가 훨씬 낮음. 특히, 독일과 비교하면 영국 시장의 중요성은 현저히 낮음(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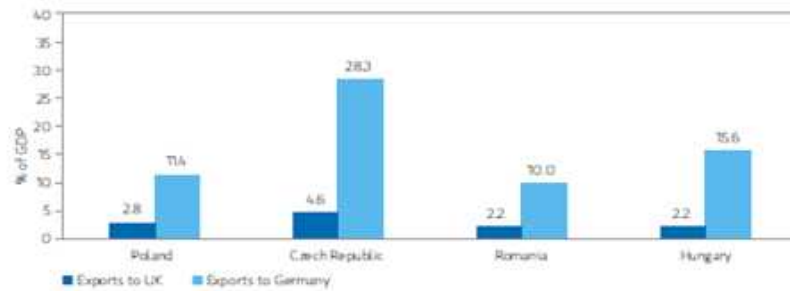
표 1. 중동부유럽 대영국/독일 수출 비중



자료 : 모건스탠리, 2016

주 : 전체 수출량 비중 및 GDP 비중

표 1. 중동부유럽 대영국/독일 수출 비중(연속)



Source: IMF Directions of Trade (December 2014 to November 2015).

자료 : 모건스탠리, 2016

주 : 전체 수출량 비중 및 GDP 비중

- 중동부 유럽 국가 중 폴란드만이 유일하게 대영국 수출 비중이 전체의 6%를 차지하며 영국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음.
- 그러나 유념해야 할 것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국가 가운데 대외적으로 가장 개방되지 않은 국가라는 사실임(무역 개방도,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
- 폴란드의 GDP 대비 대영국 수출 비중은 최근 3%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체코는 5%를 웃돌았음. 슬로바키아, 헝가리, 발트 해 연안 공화국들(발칸 반도 국가들)과 같은 나머지 중동부 유럽 국가의 대영국 수출 비중은 훨씬 더 낮게 나타났음.

**☐ 중동부 유럽(CEE) 국가들의 대영국 수출입 비중이 낮아 무역 활동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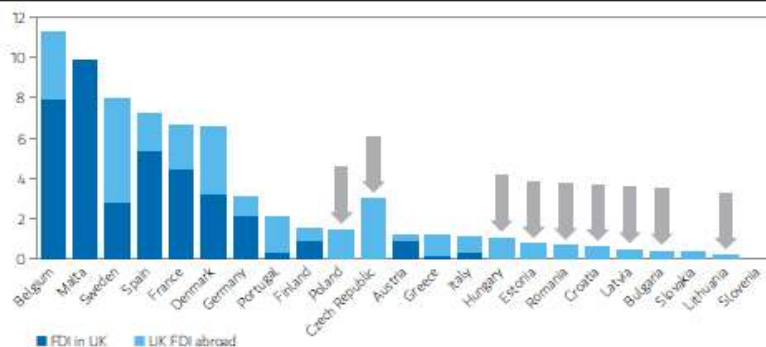
- 이처럼 대영국 수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브렉시트가 중동부 유럽 국가의 무역 활동에 급격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함. 게다가 브렉시트가 발생한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부 유럽 국가의 수출 성장률은 수출량의 전면적인 감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 수입의 경우 또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EU를 탈퇴했을 때 중동부 유럽 국가의 무역 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함. 헝가리의 경우, 영국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에 불과함 (이는 다른 중동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헝가리가 영국에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는 점을 시사함).
- 그러나 중동부 유럽 국가의 생산업자들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다른 EU 국가들과 교역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국 시장과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따라

서 영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거나, EU 잔류국과 탈퇴국간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등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중동부 유럽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음.

**☐ 중동부 유럽(CEE) 금융권에서 영국계 은행을 대체할 은행들이 존재하며, 영국계 은행들이 중동부 유럽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중동부 유럽 금융권에서 영국계 은행들, 보험사들, 중개사들의 위상은 견고한 편임. 그러나 이 또한 영국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에 은행보다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음.
- 게다가 외국계 은행이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용자를 지원하는 일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새로운 금융 수요가 발생하면 Erste Bank, Deutsche Bank, Unicredit과 같은 적극적인 주자들이 개입하여 영국계 은행들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됨.
- 마찬가지로, 영국과 EU 27개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라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출입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영국계 기업들이 북유럽이나 남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표 2 참고)

표 2. 유럽 국가별 GDP 대비 영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출입액 비중(2014년)



자료 : 모건스탠리, 2016

- 그러나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전략을 재검토한 직후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음. 또한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음. 이어서 중요도가 더 큰 세 번째 측면, 중동부 유럽 경제에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송금과 소득 흐름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영국 거주 중동부 유럽(CEE) 이주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액 규모가 상당함. 따라서 중동부 유럽 정부들은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이민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송금에 차질이 생기기 원치 않음.

- 영국 내 거주하는 수백만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비정규직 및 정규직 포함)의 소득, 저축, 송금액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가 없음.
-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이주 노동자들을 비롯한 영국의 송금인들이 발생시킨 자금의 흐름이 특정 동유럽 국가들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 영국 연간 송금 유출액(2015년)

(단위: 1 million USD)

불가리아	62
체코	180
헝가리	373
라트비아	319
리투아니아	312
폴란드	1162
루마니아	97
슬로바키아	248

자료 : 세계은행, 2016

- 표에 나타난 금액을 순 송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나, 역 흐름(동유럽 국가들에서 영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매우 적음.
  - 표에 나타나 있듯, 라트비아나 리투아니아와 같은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작은 국가임에 비해 (순) 송금액의 규모는 상당함.
  - 표에서 언급한 국가 중 지리적으로 가장 큰 폴란드는 영국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고 있음.
  - 국민소득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GDP의 1%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함. 또 다른 기관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금액의 두 배 혹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
- 확실한 것은, 이러한 수입이 송금을 받는 수십만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졌다는 사실임.
  -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인은 8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폴란드 전체 노동 인구의 3~4%를 차지함.
  - 영국 거주 노동 인구의 비중은 발트 해 연안 공화국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체코나 헝가리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음.

- 전문가들은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중동부 유럽 시민 혹은 이주 노동자의 10~20%만이 자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sup>1)</sup>.
-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너무 많아 본국에서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움.
- 앞서 표에서 언급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어느 국가의 정부도 'EU 탈퇴' 캠페인이 주장하는 이주 노동자 수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님.
  - o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영국에 거주하는 중동부 유럽 시민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영국에서 획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
  - o 이 문제는 영국이 EU로부터 '분리(divorce)'될 때 영국 당국자들과 중동부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추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임.

## 3

## 거시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 ▣ 영국 국민투표 이후 불거진 대혼란 사태의 이차적인 영향은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더 큰 충격을 가질 수 있음.
- ▣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보류되거나 추후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동부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전역에 걸친 불확실성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자금 유입에 전통적으로 의존하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모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는 어느 정도 이중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음.
    - o 생산량의 절반(및 대다수 수출량)이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국내 기업에서 발생함.
    - o 현재 유럽 전역의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검토하고, 판매 및 수익 계획을 재검토하느라 분주함.
    - o 일련의 투자 계획들과 인수 프로젝트들이 보류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뒤따르고 있음.
    - o 이렇게 보류된 프로젝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극히 낮음.
  - 그러므로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지금도 그다지 높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도 약화할 것임.

1) Zoldi, 2016

**☒ 주요 재정 기여국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유럽연합 구조 기금의 미래가 불투명해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던 중동부 유럽(CEE) 국가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감소할 예정**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구조 기금(the EU structural and cohesion funds)의 향후 행방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동부 유럽 국가의 기금 수령액(net inflow)은 이들 GDP의 3~4%를 차지함. 일례로, 폴란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U 국가 중 가장 많은 1,147억 유로를 수혜 받을 계획임.
- EU 탈퇴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유럽연합(EU) 예산의 주요 재정 기여국(net contributor)임.
  -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머지 주요 재정 기여국들이 7년 만기의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영국의 지분을 분배하여 보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수많은 서유럽 납세자들은 주요 수혜국인 유럽연합 신(新) 회원국들(및 그리스 등 특정 구(舊) 회원국들)이 집권층의 부를 축적하고, 실속 없이 거창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EU 기금을 남용했다고 믿고 있음.
  - 그러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자금 유입이 감소하면 기금 수혜국들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약화될 것임.
- 이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임박한 과제는 아님. 7년 만기의 재정 계획(financial framework)이 2020년에 만료됨.
- 그러나 유럽연합 예산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가 공식적인 중기 재정 사이클(the medium term financial cycle) 만료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조치가 단행되면 중동부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며 유럽연합 탈퇴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계속될 것임.



## 4

## 결론 및 전망

☒ 브렉시트가 중동부 유럽(CEE)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중동부 유럽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중단기적인 손실이 발생할 전망.

☒ 그러나 이들 국가가 유럽연합에 잔류한다면 추후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로 선호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유럽 비즈니스의 중력이 이동해 올 것으로 예상됨.

-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 몇 주 후,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통화 약세 현상이 나타난 것은 대외적으로 개방된 지역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특히 이번과 같은 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중동부 유럽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함.
  -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그럴 것으로 예상함. 영국 시장이 중동부유럽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유럽 전역에 걸친 불확실성의 증가는 중동부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 영국이 EU로부터 '분리(divorce)'되는 동안, 글로벌 기업들은 지역 전략(regional strategies)을 재수립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과정에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는 불투명함.
  -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제한하려는 영국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는 투자자들도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럽 비즈니스계의 중력이 동부 유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것임<sup>2)</sup>.
- 이러한 중력 이동으로 잠재적인 중단기 손실이 일부 상쇄될 전망이며,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EU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며 잔류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이들 국가를 안전한 투자처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 핵심국들이 영국을 배제하고 연합체(inner circle)를 다시 설립하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체제를 벗어난 국가들은 투자자들에게 너무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임.

EMERiCs

출처

2) Anderson, 2016

-Anderson, Robert (2016): Brexit puts Central Europe on the spot.

<http://www.intellinews.com/visegrad-brexit-puts-central-europe-on-the-spot-100575/?source=blogs>

-Global Economics (2016): Brexit is a local, not global, shock. July 7.

<https://www.capitaleconomics.com/global-economics/global-economics-update/brexit-is-a-local-not-global-shock-36027/>

Moody's: Brexit direct impact is limited for CEE countries due to small UK links. Global Credit Research - 07 July 2016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Brexit-direct-impact-is-limited-for-CEE-countries-due-to-small-UK-links-PR\\_35](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Brexit-direct-impact-is-limited-for-CEE-countries-due-to-small-UK-links-PR_35)

-World Bank (2016): Migration and Remittances Data. April 2016.

<http://www.worldbank.org/en/topic/migrationremittancesdiasporaissues/brief/migration-remittances-data>

-Zoldi, Blanca (2016): Brexit-fed xenophobia pressures CEE emigres. Intellinews, June 30, 2016.

<http://www.intellinews.com/brexit-fed-xenophobia-pressure-CEE-emigres-100960/>